

# KMI 동향분석

**VOL.178**

2022 FEBRUARY

발간년월 2022년 2월(통권 제17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감 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연구진)의 견해이며,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 수산물식품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박찬엽 수산양식정책연구실 연구원

(pcy0814@kmi.re.kr/051-797-4569)

조현주 수산양식정책연구실장

(joheonju@kmi.re.kr/051-797-4567)

가정간편식이 식품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조 4,6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5.8% 성장하였다. 실제 소매점에서 가정간편식이 판매된 금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5조 5,710억 원으로 추산된다. 가정간편식과 관련한 각종 선행연구 및 보고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가정간편식의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간편식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 선택이 있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소량 제품 선호’, ‘편의점 활용 증가’와 같은 소비문화를 주도하면서 식품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더불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적모임 제한, 재택근무 증가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나면서 구매와 조리가 편리한 가정간편식 소비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제 가정간편식은 1인 가구를 넘어 다양한 소비층이 선택하는 식품형태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소비트렌드 변화는 수산물식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산물 구매에 있어서 구입과정 그리고 조리의 편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은 ‘포장한 형태’,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에 대한 선호를 확대하는 등 조리과정에서의 편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수산물 구매시 전통적으로 강조된 맛·품질·안전성뿐만 아니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을 주변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별도의 조리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화문어숙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전자레인지 등 단순가열을 통해 섭취하는 생선구이·미역국·전복죽, 간단하게 조리하는 매운탕·해물탕 등 밀키트 제품까지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특히, 일부 생선구이 제품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1년간 1,000%를 상회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2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3%가 가정간편식 구매경험이 있고, 만족도에 대한 긍정비율이 64.4%로 집계되었다. ‘시간절약’, ‘적당한 양’ 등 가정간편식의 특징이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구입경험이 없는 집단의 과반(70.1%)이 향후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긍정적 연관어가 8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결과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맛·품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는 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의 출시는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의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는 수산식품산업 전반의 성장 가도를 이어가면서 국내산 원료 수산물 활용 확대라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정간편식 성장은 동조화된 소비행태가 식품시장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사례로서, 무엇보다 소비의 영향력 그리고 소비트렌드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따라서 맛·품질·안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맞춤형 가정간편식 개발, 메뉴 확대 등을 통한 소비층 확대가 수산식품산업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예로서, 일본 가정간편식은 고령인구 영양공급을 위한 개호(介護)식품으로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가정간편식에 활용되고 있는 원료 수산물은 수입산이 68%로 국내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제조업체는 ‘안정적 원료조달’, ‘가격’, ‘제품형태’, ‘대량 납품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수입산 원료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 성장이 국내 생산자 전반에게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생산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수산물 활용을 통한 제품화 및 판매지원, 제조유통업체-생산자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간편식은 과거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한 인스턴트·냉동 중심의 즉석식품에서 현재는 맛·건강·안주·캠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목적형 식품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국내 수산식품 산업에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가정간편식 성장이 ‘수산물은 조리가 어렵다’, ‘수산식품은 외식을 해야 한다’와 같이 수산물 소비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던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식품산업은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적극 활용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 국내 식품시장 간편성·편리성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확산 가속화

## ■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식품산업 다양한 변화 초래

- 1인 가구는 생활 필수요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고 다인(多人)가구 대비 가구원 1인에 대한 투입 비용이 대체로 높음.<sup>1)</sup> 특히 전체 가구 대비 가구원 1인에 대한 식료품 지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비 주체로서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sup>2)</sup>
  -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의 수는 633만 가구로 전체 가구대비 가장 비중이 높고,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향후 25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sup>3)</sup>
-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구매과정이 쉽고 빠르며, 편리한 것을 선호하며, 식료품 구매 시 다인가구에 비해 통신매체, 편의점 활용비율이 높음. 또한, 택배운송이 가능하고 소량 구매가 가능한 제품, 가공식품, 냉장·냉동식품, 가정간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sup>4)</sup>
- 1인 가구 증가는 ‘소형 제품 수요 증가’, ‘간편식 및 편의점 수요 확대’,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시장 확대’ 등 제조, 유통, 외식 등 식품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초래함<sup>5)</sup>
  - 시장에서는 1인 가구 생활을 위한 소량 패키지 상품, 1인 반찬 배달서비스 등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음<sup>6)</sup>
- 최근에는 보관과 조리가 쉬운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빠르게 확산됨.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적 모임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서 보관과 조리가 간편한 가정간편식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7)</sup>
- 오리온, CJ, 풀무원, 롯데를 비롯한 주요 식료품 제조기업 등은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확대에 대응하여 한끼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용식 식품 출시를 확대함<sup>8)</sup>
- 가정간편식은 이제 1인 가구를 넘어 다양한 소비층이 선택하는 식품으로서 자리매김함

1) 한정민·이용호(2013),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t 산업경제』, pp. 22~31.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가 가구원 1인에 투입하는 식료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전체 가구의 가구원 1인에 투입되는 식료품비는 월 15만 9천 원이고, 1인가구는 월 18만 1천 원임)

3)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 2017~2047」, p. 37.

4) 오픈서베이(2020), 「1인 가구 트렌드 리포트 2020」, pp. 7~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pp. 3~6.

5) 이계임 외(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vii.

6) 정인·오상엽(2020),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KB 금융지주연구소, p. 47.

7) 연합뉴스(2021. 7. 12), 「코로나 확산에 '집콕' 증가... 더 높아지는 가정간편식 인기」

8) 정인·오상엽(2020),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KB 금융지주연구소, p. 47.

## ■ 수산물 소비, ‘구입 편리성’, ‘조리 편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

- 최근 5년간 수산물에 대한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에 대한 문항에 ‘구입 편리성’이 2016년 대비 2020년에 3.1%p, ‘조리 편리성’이 2.0%p 증가하는 등 타 항목 대비 간편성과 연관된 항목에서의 응답비율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수산물 구입 시 고려요인 응답 추이

(단위: %)

구분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건강)	구입 편리성	조리 편리성
2016년	12.3	31.8	14.3	33.4	2.7	2.6	3.0
2017년	13.4	35.9	14.0	29.4	2.1	2.3	2.9
2018년	12.9	34.9	13.1	32.3	2.3	1.9	2.6
2019년	9.6	34.4	13.0	33.3	2.7	3.3	3.7
2020년	11.2	31.1	11.7	31.7	3.6	5.7	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2016, p. 283; 2017, p. 211; 2018, p. 285; 2019, p. 341; 2020, p. 391)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또한, 최근들어 ‘손질한 형태’의 수산물을 구입하는 선호도는 감소하고, ‘포장한 형태’를 비롯한 ‘반조리된 형태’, ‘조리된 형태’의 수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 소비에 있어 전통적으로 강조된 맛, 품질, 안전성뿐만 아니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 수산물 구입형태 응답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2016, p. 282; 2017, p. 210; 2018, p. 284; 2019, p. 340; 2020, p. 390)  
참조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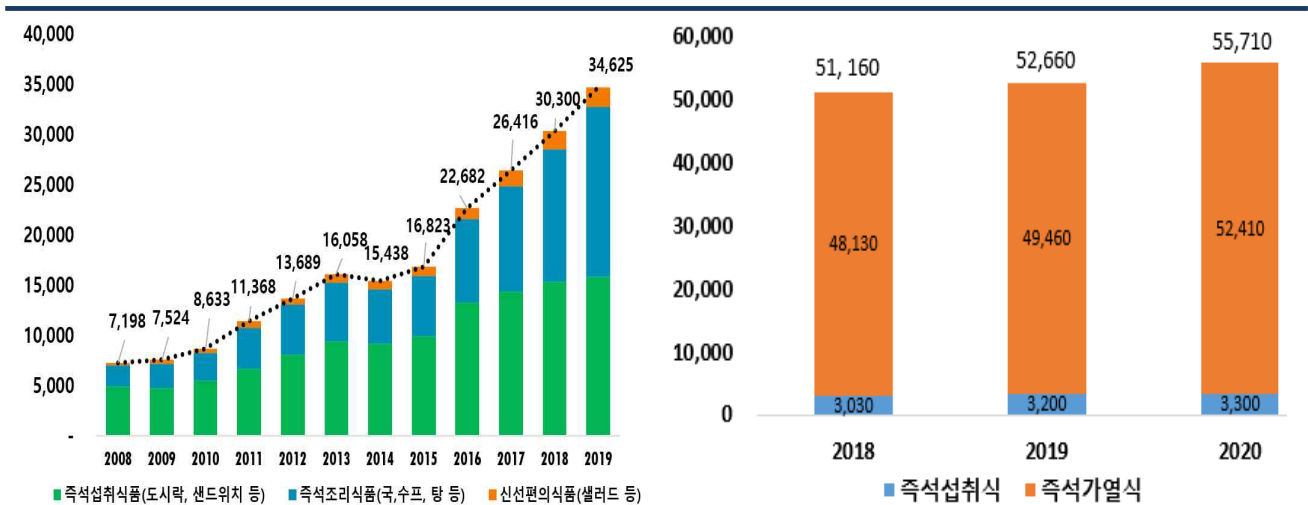
##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과 더불어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다양성 확대

### ■ 가정간편식 시장 최근 10년간 가파른 성장과 동시에 소매점 매출액도 증가세

-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체계(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를 기준으로 2008년 약 7,200억 원에서 2019년 약 3조 4,600억 원으로 연평균 15.8% 성장함<sup>9)</sup>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시장규모 3조 2천억 원에서, 2022년에는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민간 리서치조사 기업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실제 소매점을 통해 가정간편식이 판매된 금액은 2020년 기준 5조 5,7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즉석가열식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2〉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닐슨코리아(2021), 「2020 Nielsen HMR Report」, p.80~89

### ■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가정간편식 출시, 2020년 구이류 중심으로 매출 급성장<sup>10)</sup>

- 가정간편식은 준비 수준에 따라 속성이 구분<sup>11)</sup>되기도 하며, 구입 후 섭취가 가능한 즉석 화문어숙회, 전자레인지 등 단순가열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 생선구이·미역국, 간단하게 조리하는 매운탕·해물탕 밀키트 등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속성의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출시, 판매되고 있음

9)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가정간편식의 정의와 통계범위 설정의 차이로, 선행연구별, 보고서별 차이가 존재함.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생식만두류를 제외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3개 범주로 가정간편식 범위를 가정함

10)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통해 산출되고 있으나, 통계상 수산물 활용 여부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수산부문에 특화된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파악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수산물을 활용한 주요 가정간편식 품목의 제품출시 및 매출액 변화를 통해 시장 동향을 제시함

11) ① RTE(별도의 조리 없이 구입 후 섭취 가능한 식품): Ready to Eat

② RTH(단순 가열을 통해 섭취 가능한 식품): Ready to Heat

③ RTC(RTH에 비해 긴 시간 가열이나 간단한 조리가 필요한 식품): Ready to Cook

④ RTP(다듬기, 자르기 등 최소한으로 손질된 제품으로 직접 조리 후 섭취 가능한 식품): Ready to Prepared



- 품목별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새우볶음밥, 전복죽, 생선조림, 생선구이 등 다양한 품목들의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삼치구이, 고등어구이, 가자미구이 등 일부 생선구이 제품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sup>12)</sup>

〈그림 3〉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의 유형 및 제품 출시 사례

구분	유형별 제품 출시 사례
Ready to Eat (RTE)	
Ready to Heat (RTH)	
Ready to Cook (RTC)	
Ready to Prepare (RTP)	

자료: 이현동(2019), 「HMR 수산식품 소비트렌드와 정책과제」, 『수산물관측 & 이슈』, p.10

〈표 2〉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매출 변화 분석 결과(소매점 데이터 기준)

제품명	2019매출액(억원)	2020매출액(억원)	증가율
새우볶음밥(A사)	19	53	279%
새우볶음밥(B사)	46	49	107%
전복죽(B사)	78	98	126%
전복죽(C사)	35	92	263%
전복죽(C사)	13	69	531%
삼치구이(D사)	1	14	1,400%
고등어구이(D사)	1	18	1,800%
고등어시래기조림(D사)	5	9	180%
가자미구이(D사)	1	11	1,100%
꼬막간장비빔(C사)	4	9	225%

자료: 닐슨코리아(2021), 「2020 Nielsen HMR Report」, p.80~189

12) 해당 가정간편식 생선구이는 2019년 8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당해년도 매출액이 타 제품(기준 출시상품)에 비해 낮음

##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긍정적 인식 커, 맛·품질이 소비 확대 좌우

### ■ 소비자 설문결과, 응답자 85.3% 수산식품 가정간편식 구매 경험 있어<sup>13)</sup>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1년 국민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3%가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주요 구매 동기는 ‘시간 절약’, ‘적당한 양, 합리적 가격’, ‘다양한 수산물 요리가 가능해서’, ‘수산물 요리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이며, ‘코로나19’, ‘가정간편식 선호도 증가’, ‘식생활 변화’ 등의 이유로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체로 만족 60%, 매우 만족 4.4%, 보통 33.5%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비율(64.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14)</sup>
- 한편,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구입경험이 없는 응답자(14.7%)를 대상으로 향후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구매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1%, ‘없다’가 29.9%로 집계되어 비구매 집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맛’, ‘품질’, ‘안전성’, ‘수입산 원료 사용’ 등은 향후에도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을 구입하지 않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남

〈표 3〉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비구매 소비자의 향후 구매 의사와 이유

구매의향 있음(70.1%)		구매의향 없음(29.9%)	
이유	비율(%)	이유	비율(%)
편리할 것 같아서	78.6	대체적으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36.0
식사 준비·뒷처리에 소요 시간 절약	43.6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32.0
요리방법 모르는 메뉴 섭취 가능	30.8	수입산 원료를 이용한 제품이 많은 것 같음	26.0
직접 조리하는 것에 비해 저렴해서	23.9	가공식품 보다 원물로 요리한 것을 선호	26.0
맛있을 것 같아서	22.2	가격이 비싸서	26.0
보관이 용이할 것 같아서	16.2	직접 조리한 수산물 요리가 맛있어서	20.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16.2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느낌이라서	20.0
브랜드 제품이 많아서 신뢰	7.7	조미료 사용이 과다해서 건강 우려	14.0
식품 주 구매처에 진열되어 있음	6.0	기타	8.0

주: 중복허용

자료: 마창모·조현주·박찬엽(2021),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연구」, p. 123

13) 마창모·조현주·박찬엽(2021),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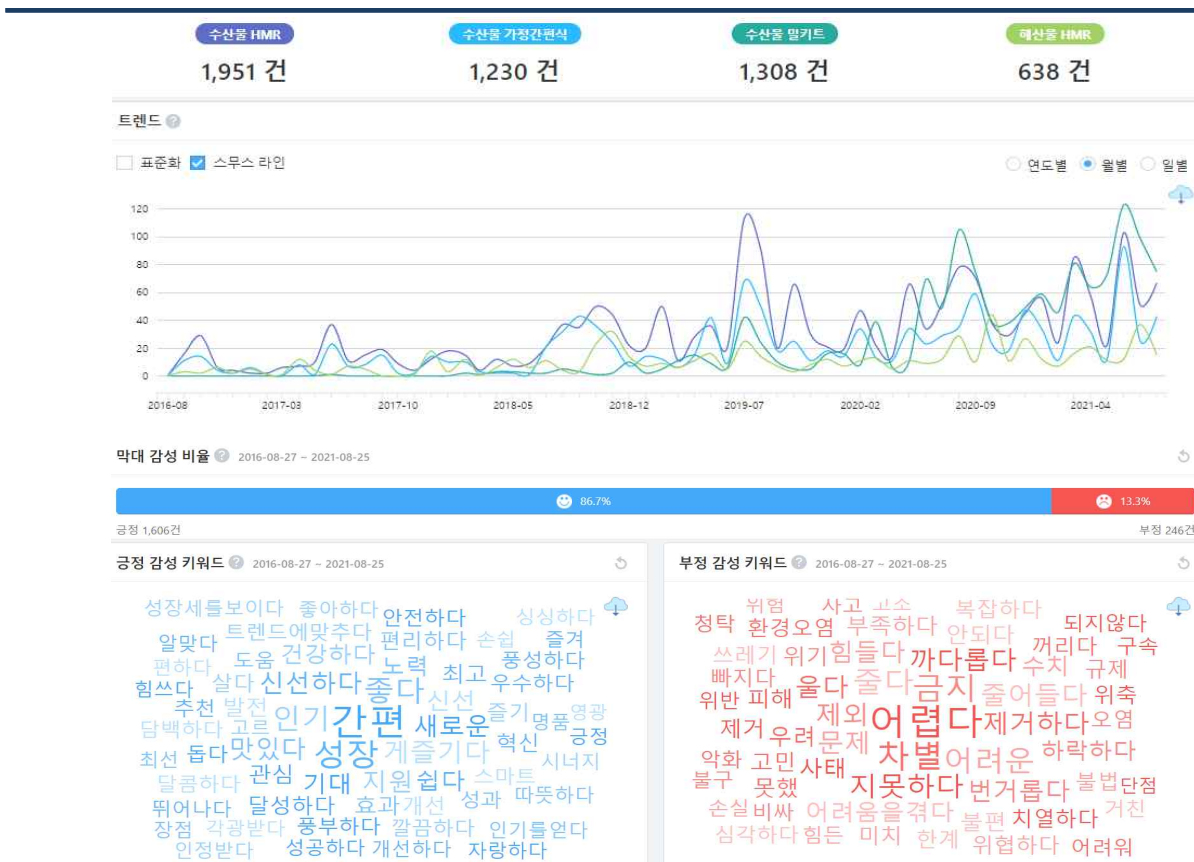
14) 리커트 5점 척도

## ■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대중의 관심 꾸준히 증가하고 온라인상 긍정적 연관어 비중 큰 편

-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키워드 ‘수산물 HMR’<sup>15)</sup>에 대한 긍정적 단어 비율이 8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수산물 HMR’을 비롯하여, ‘수산물 밀키트’ 등 수산식품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은 최근 5년간 언론사,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노출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임
- 이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출시도 활발해지면서, 언론사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서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을 조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을 의미함
- 한편, 가정간편식 수산식품과 관련한 부정적 단어는 그 비율(13.3%)이 긍정적 단어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만, ‘어렵다’, ‘까다롭다’ 등 기존의 수산물 조리시 어려움을 지칭하는 키워드도 제시됨

〈그림 4〉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빅데이터 분석 주요결과

(단위: %)



자료: 마창모·조현주·박찬엽(2021),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연구」, pp. 51~63

15)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을 지칭하는 키워드 중 데이터가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HMR’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마창모·조현주·박찬엽(2021), pp. 51~63 참조



# 일본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연계한 가정간편식 활용 확대

## ■ 도시락 문화 발달한 일본 가정간편식 시장 최근 10년간 27.3% 성장

- 2018년 기준 일본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10.3조 엔(950억 달러)으로, 10년간 27.3% 성장함<sup>16)</sup>
-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가정간편식 개념이 200년 전 에도 시대에 생선, 채소, 양념이 포함된 음식을 판매하는 니우리아(Niuriya)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소자이(Sozai)로 불리며 장어, 연어, 새우튀김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sup>17)</sup>
- 일본 가정간편식 시장 또한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진출, 1~2인 가구 확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

## ■ 초고령사회 진입한 일본 고령자 영양 보급을 위한 개호식품으로 가정간편식 활용 확대

-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개호식품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식품이 빠르게 성장함
  - ‘개호(介護)’란 곁에서 돌보아 준다는 의미로, 개호식품은 음식 섭취 및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가 이용하는 식품으로,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 간식, 조리식품 등을 가리킴<sup>18)</sup>
- 일본의 고령층의 인구는 높은 구매력으로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였음
  - 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섭취하던 개호식품은 고령인구의 소비 확대로 판매율이 증가함<sup>19)</sup>
- 요양이 필요한 고령인구의 영양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정간편식 활용이 확대됨
- 미니스톱 등 일본 내 유통점포 1만여 개를 보유한 이온사는 개호식품 관련 자체 브랜드의 제품 및 냉장식품 라인을 확대하였으며, 유명 덮밥 프랜차이즈인 요시노야는 2017년부터 부드러운 덮밥 등 가정간편식 형태의 개호식품을 출시함<sup>20)</sup>
- 우리나라도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점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식품 등 특수목적형 가정간편식 제품개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16) USDA, "Home Meal Replacement Marketing Heating up in Japan", p. 2.

17) 위의 책

18) 이셋별(2017), 「일본의 개호식품 산업 동향」, p. 4.

19)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간편식)」, p. 136.

20) 위의 책

## 수산식품산업,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 ■ 가정간편식 성장, 사회·문화 변화로 동조화된 소비형태가 식품시장 판도를 바꾼 사례

- 앞서 제시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은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된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간편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조화된 소비형태가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더불어 인간의 생활 전반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효율적 시간활용의 개념이 식생활의 영역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에도 가정간편식과 같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가정간편식 성장 사례는 식품 공급에 있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가 아닌 필수로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시사함
- 수산부문에서도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 ■ 소비층 확대 위한 맛·품질·안전성 등 인식 개선 노력, 소비자 맞춤형 메뉴 개발 필요

-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수산식품의 구매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맛·품질·안전성 등은 가정간편식이라는 새로운 제품형태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부패성’, ‘비린내’ 등 소비자가 수산식품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인식이 관념화되어 있고, ‘위생·안전’에 대한 기준이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엄격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 스마트 가공기술 개발 및 적용, 콜드체인 유통 인프라 확대, 원산지 관리강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도입 등과 같은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의 품질, 위생·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노력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되고, 맛·영양·건강·외관·브랜드 등 다원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여 맞춤형 메뉴 개발이 필요함
- 고령친화형 가정간편식, 환자용 가정간편식, 단백질 보충형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가정간편식 개발과 더불어 채소류, 육류 등 타 식품을 조합한 가정간편식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국내산 수산물 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국내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원료 수산물, 수입산 68%, 국내산 32%로 수입산 비중이 높음<sup>21)</sup>
  - 국내산 수산물 활용: 어류 38.1%, 연체류 15.5%, 해조류 59.2%, 패류 43.0%, 갑각류 34.3%
- 가정간편식 수산식품 제조업체들은 안정적 원료조달, 가격, 제품형태, 대량 납품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수입산 활용을 선호함
- 앞으로는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세가 국내 생산자들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산업 전반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선 규모화된 생산, 품질인증·판로확보 등 생산자 경쟁력 강화지원, 지역 수산물 활용을 통한 제품화 및 판매 지원, 대형제조·유통업체-생산자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 신선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가정간편식의 변화, 수산식품산업 도약의 기회가 될 것

- 과거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한 인스턴트·냉동 중심의 즉석식품은 이제 각종 신선한 재료를 포함한 밀키트 형태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음. 가정간편식은 소비자들이 맛·건강·안주·캠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목적형 식품으로 개념이 확장됨
- 특히, 수산식품 소비에 있어 가정간편식은 수산물을 신선하고 맛있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외식을 해야한다는 다소 제한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매운탕, 해물탕, 각종 찜, 구이 등이 다양한 수산식품이 출시되고 있고 주요 품목들의 매출액 증가는 수산식품산업에 매우 긍정적 신호로 해석됨
- 가정간편식 수산식품의 맛·품질의 개선과 맞춤형 메뉴개발, 국내 수산물 활용 확대를 통해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을 수산식품산업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1) 마창모·조현주·박찬엽(2021), 「1conomy 시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전략 수립연구」, pp. 101~105.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동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 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햇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방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사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조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식품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관계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제168호	해양공간계획·행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	2020.04.29.
제169호	코로나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2020.05.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6.
제171호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2020.06.22.
제172호	COVID-19에 따른 선원수급 및 선박검역 대책마련이 시급	2020.07.03.
제173호	포클랜드 입어 정책 변화 예고, 국내 오징어 수급 대응 방안 마련해야 - 2020 한중남미수산물포럼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	2020.10.30.
제174호	공유경제, 청년구여인의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넘는 사다리가 되어야...	2020.11.06.
제175호	한-러 '북극협력 2.0' 시대를 여는 新 북극전략 수립 필요	2021.02.02.
제176호	글로벌 수산물 소비 구조 변화 고려,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2021.02.16.
제177호	중국의 '연해 사요띠이 운송' 완화, 전해상황에 미치는 영향 미미	2021.12.07.
제178호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 수산식품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2022.02.16.

URL: <https://www.kmi.re.kr/>